흡연에 대해서

담배는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피우고 싶으면 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의 연기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내린 적이 있고, 또, 레스토랑에서 담배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연기를 마시면 피우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고 합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빨리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임산부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기형아의 출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면 누구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금지의 장소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등 학생의 흡연이 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회사와 공항에 있는 금연실까지 없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높은 벌금을 물린다든가 도로의 청소를 시키거나 하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의 선을 위해 시민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